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9년 표어§

"거룩한 교회 · 민족의 구원선 되게 하소서"
(히 13:12-16, 합 3:2)

十 행동 지침十

- 1. 교회의 거룩성 회복하여 민족의 희망
- 2. 믿음의 대를 잇는 예배공동체, 선교공동체
- 3. 하나님 역사 속의 행동하는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에루살렘 성 봉헌식

(느헤미야 12:27~47)

이종윤 원로목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고난이 따른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까지 표현했고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다(롬 12:1). 믿음에는 희생이 요구된다. 성경공부도, 기도하는 것도 다 어렵다. 전도는 더욱 어렵다. 이 악한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는 더욱 어렵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 대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 오라"고 하셨다. 물론 그 고난의 터널을 잘 통과한 자에게는 승리의 기쁜 날이 올 것이다.

느헤미야는 그 같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온 것이다. 그리고 비로소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하게 되었다.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52일 만에 이 같은 대업을 완성하게 되었다.

느헤미야는 성의 거민을 정착시킨 후 백성과 함께 이 축제를 벌였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레위인들을 찾아 감사의 노래를 했고 제금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운 봉헌식을 했다.

우리는 둘로 나누어져 한편은 느헤미야가 인도하고 다른 편은 에스라가 인도하면서 서로 성을 돌며 행진했다. 각 그룹엔 노래하는 이들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성을 에워싼 후 성전에서 희생제물을 바치고 크게 소리치되(43절) 예루살렘의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

실은 6장에서 성 쌓는 일이 완성되었지만 봉헌식은 12장에서 진행되었다. 왜일까?

느헤미야서는 두 부분으로 나뉜다.

- ① 성을 수축하는 일
 - 느헤미야의 지도력이 보인다(1 - 7장)
- ② 예루살렘 재건과 백성의 재헌신
 - 제사장, 영적 지도자 에스라가 돋보인다(8장 - 12:26).

그래서 12장 27절 이하에서 봉헌식에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각각 축하하는 백성들을 인도한다. 느헤미야가 쌓은 성을 둘러싸고 성전에 모인다. 거기서는 에스라가 집전하여 나라의 영적 삶의 중심지에서 예배하는 것이다.

에스라가 백성의 갱신과 재봉헌을 인도하는 동안 느헤미야는 뒷전에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성을 봉헌할 준비가 되었을 때 느헤미야는 다시 부각된다.

I. 백성의 봉헌식

고린도후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성도들이 극한 가난 중에서도 풍성한 물질을 구제비로 바친 사실을 말하면서 그들은 주님께 자신을 먼저 바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에게 주었다고 했다(5절).

하나님께 헌신을 우선하면 다른 것은 따라온다.

예루살렘 거민들은 문을 바치고 성벽을 봉헌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자신을 바쳤다. 봉헌이란 드리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지배를 받도록 바치는 것이다.

12장에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자신을 먼저 정결케 했다(30절). (민 8:5 - 22, 대하 35:6, 스 6:20) - 의복도 빨고 금식, 금욕하며 속죄제를 바쳤다.

II. 성(城)을 봉헌한다

문과 성에 우슬초로 속죄양의 피와 물을 뿌린 후 봉헌식이 가능하다.(30)

1. 축제 행진(성벽을 돈다)

31절에는 우측으로 돌았고 38절에는 좌측으로 돌았다. 그래서 성전에 모이게 했다.

2. 성전에서 예배

- 찬양대 노래와 제사장이 희생을 바친다

① 노래 - 찬양대 노래와 악기(27절)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벨길갈과 게바와 아스마뿔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느 12:27~30)

찬양감독으로는 에스라히야를 세웠으며 찬양 곡목으로는 - 시편 48, 78, 105, 106

② 기쁨 - 기쁜 마음에서 찬송도 나온다(12:43)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빌 4:4)

III. 계속되는 사역

1. 느헤미야 12장 44 - 47절

성전 공간을 맡은 일꾼을 세움, 십일조를 공간에 쌓게 함.

2. 느헤미야 13장 1 - 3절

이방인과 타협한 이들을 골라내어 추방하고 백성을 성별 시키는 일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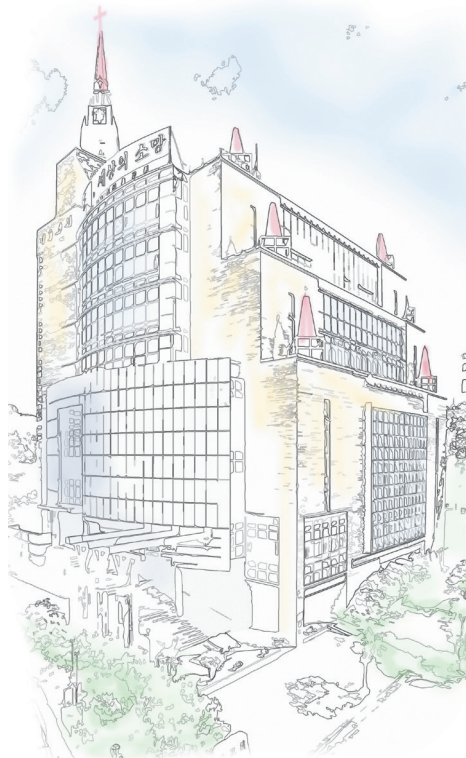
"그 날에"(12:44), 봉헌식 하는 날에 이 같은 일을 했다.

"그 날에"(13:1), 기쁜 날.

그 날은 중요한 날이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같은 일은 계속되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한다. 그리스도로 구원 받은 그리스도인만이 기쁨의 원인을 깊이 즐거워한다.

성과 국가를 재건했지만 그는 항상 깨어 있었다.



12사단 진중세례식

3월 23일(토) 오전 7시 교회 출발

우리교회 비전2020 운동본부(본부장 : 최광성 장로)에서 주관하는 12사단 진중세례식이 3월 23일(토)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날 우리교회는 장병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십자가의 군병으로 거듭나게 하는 설교를 포함한 축복의 시간을 갖게 된다.

3월 23일(토) 오전 7시 교회에서 출발한다. 많은 성도들의 참석과 기도 바란다.



서울교회 파송 김낙형·오정녀 선교사가 지도하는 케냐 아마니콰이어 한국 찬양사역

4월 28일(주) 찬양예배 시 특별찬양

서울교회가 케냐로 파송한 김낙형·오정녀 선교사가 지도하는 아마니콰이어가 한국을 방문하여 찬양사역을 펼칠 예정이다.

아마니콰이어는 김낙형·오정녀 선교사가 지도하는 합창단으로 케냐 6곳에서 진행되는 220여 명의 아마니 음악학교에서 특별히 음악적 소질이 있어 선발된 50여 명으로 전부 장학생으로 연주반과 연습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성가, 일반합창곡과 케냐 전통음악과 무용, 피아노교육, 한국무용(부채춤)의 수업으로 아주 잘 훈련되어 각 개인의 특성을 더욱 살려주고 복음을 바탕으로 합창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

합창학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마니콰이어는 4월 3일(수)~5월 2일(목) 체류할 예정이며 서울교회 당회는 지난 3월 6일(수) 정기당회에서 이들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 사용할 아가페타운 19박 시설이용료를 지원하기로 결의하였다.

4월 28일 찬양예배에서 특별찬양을 하고 이날 1일 홈스테이를 진행 할 예정이다.

이들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하심이 깃들기를 기도하며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란다.



교회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김은숙7 전성희 최현인 한길동 김복녀 이승희 무 명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 (서울교회장로회)

2019 성경암송대회

범위: 마 5-7장(산상수훈)
예선: 9월 29일(주일)
본선: 10월 12일(토)

2019년 성경암송대회 일정과 범위가 확정되었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 바란다.

1. 교회학교별 성경암송대회(예선)
 - * 일시: 9. 29(주)
 - * 암송범위: 마 5-7장(산상수훈)
2. 각 부서별 성경암송대회(본선)
 - * 일시: 10.12(토) 오후 7시

만민에게 전도



이준호 집사 (선교위원회 서기)

서울교회는 창립초기부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해외 선교사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05년부터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하여 2015년에는 87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였고 2020년 100명의 선교사 파송을 목표로 간절히 기도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교회 분쟁으로 인해 가장 고통 받은 분들은 선교사님들이셨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한가정 한선교사 후원 운동과 선교지별 기도팀 활동은 계속되고 있으며 동참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서울교회에 단비와 같은 좋은 소식을 들려줍니다. 아프리카 케냐에 파송된 김낙형, 오정녀 선교사님이 마사이족 소녀

하나님 사랑의 실천을 행합시다

들이 주축이 된 '아마니콰이어'를 인솔, 귀국하여 서울, 경기, 강원, 전라도 등 19개 교회를 방문하고 찬양과 율동으로 순회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김낙형 선교사 부부는 2012년 6월 케냐의 마사이족 거주 마을에 어린이사역, 찬양사역, 교회개혁사역을 목표로 파송되었고, 선교지 부임 후 찬양과 교육, 구제에 정성을 쏟아 13개 부족별 음악학교를 세웠고 2014년부터는 하루 한 끼 밖에 먹지 못하는 어린학생들 150명에게 서울교회의 후원을 받아 옥수수죽 급식을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350~700명에게 옥수수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회는 케냐의 선교지에 급식비 후원, 우물 파기, 빗물탱크 설치, 저수지 공사, 교실 신축 등 다양한 지원을 하여 왔으며 현재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마니콰이어는 2013년 1월 빈민어린이 30명을 중심으로 창단하여 교육과 훈련을 거듭하였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케냐의 나이로비 주거지역 등 여러지역에서 공연하였고 케냐 국영방송에도 출

연하였습니다. '아마니'의 뜻은 '평화'라고 합니다.

이번 한국 찬양 사역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서울교회는 4월28일 찬양예배 시 공연을 계획하고 있으며 찬양예배 후 자원하시는 성도님 덕에서 1일 홈스테이 체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서울교회는 원활한 사역을 위하여 숙소와 차량 물품후원 등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험벗고 굶주린 어린이들을 대표하며 한국 찬양 사역을 준비 중인 아마니콰이어 단원과 인솔자, 자원봉사자들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들이 머무는 기간 동안에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위한 후원 물품을 수집하여 보내고자 하오니 뜻이 있으신 성도님들은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순절의 기도

무엇으로 갚으리요

김승륙 집사(5교구)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절기에 예수님이
 저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깊이 묵상합니다.

주님은 저희를 사랑하셔서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천하고 천한 몸으로 이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보혈의 공로를 통해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참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를
 죄 많은 저희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많은 이들 중에
 저희를 선택 하셔서 불러주셨는데,

저희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보다는
 오히려 멀리하는 불쌍한 죄인들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자신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더 앞세웠음을 회개합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저희에게 예수님의 큰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큰 사랑을 받은 저희가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며
 더욱 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예수님을 따라 성화되어 가는
 저희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모두의 참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다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하준아, 하민아 입학 축하해!

김세호 집사 정신아 집사(12교구)

사랑하는 하준아!
 초등학교(행복한) 입학 축하해!

우리 하준이는 어디가서든 즐겁고, 조직에서 으뜸이 되는 사람이 라서 처음엔 힘들더라도 누구보다도 잘 해 나갈거야. 성경의 다니엘(Daniel)처럼 늘 주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며, 건강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하준이 되길 기도할게.

귀요미 김하준쫄쫄!!

하준이가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든 주님께서 함께 지켜주실거야. 엄마도 늘 기도로 함께 해. 우리 하준이는 매력적인 주님의 자녀로 클 것임을 알기에 엄마, 아빠는 기대하고 있을게. 우리 함께 손잡고, 머리 맞대고 얘기로 더 많이 하자.

아빠, 엄마가 많이많이 사랑해!!
 예수님도!!

아빠, 엄마가



사랑하는 하민아!

초등학교 입학 축하해!

우리 하민이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을 실천하며 매일 매일 살기에, 엄마는 하민이가 얼마나 예쁘게 클지 기대가 된다.

지금처럼 건강하고 주의 말씀 따라 살고, 늘 기도하며, 기쁘게 나아가자. 하민이와 함께 주님께서 항상 계실거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 하민이를 아빠, 엄마에게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

최고의 하민이!!

아빠, 엄마가 아주 많이 사랑해!!

아빠, 엄마가

나의 하나님

하윤아 입학 축하해!

김태원 집사 조상의 집사(12교구)

하윤이가 벌써 학교를 가네?"라며 새 책가방과 준비물을 챙기면서 엄마 마음도 콩닥콩닥 뛰었는데 하윤이도 그랬을까?

"유년부에 올라가는 거야?"라고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물어와 주시는데 씩씩러워하는 하윤이 얼굴이 엄마 아빠는 마냥 귀엽기만 하네.

어딜가도 막내로 예쁨을 받고, 어릴 때 많이 아프기도 해서 그저 안쓰럽기만한 하윤이였는데 한 살 한 살 차곡차곡 나이가 들어 학교 생활을 하게 되다니...

학교까지 가는데 어려움은 없었지, 급식실에서 밥은 잘 먹을 수 있을지 걱정을 한가득 안고 입학 했는데 입학한지 3일째부터 언니랑 손잡고 학교를 가고 엄마가 마중 나오지 않아도 집에 올 수 있다며 씩씩하게 얘기를 하고, 학교하는 모습이 너무 신



김하윤(오른쪽)

기하고 대견해! 언니가 학교 다니는 모습을 봐와서 그런지 크게 낯설어 하지 않고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는거 같아서 엄마는 안심이야. 하윤아~!!

유독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그 모습을 감추려고 행동도, 말도 크게 해서 야단을 맞기도 했지만, 건강하지 말고 너를 믿고 너를 이만큼 키워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멋진 학교 생활을 하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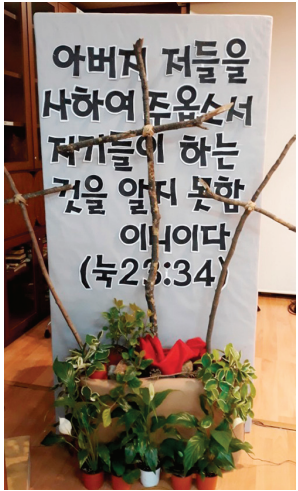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먼저 행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 믿으니깐 하윤이에게 앞으로 펼쳐주실 그 삶에 최고의 축복이 있을 거라 엄마는 믿어.

학교 생활을 하며 넘어지기도 할테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 순간순간에 하윤이와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을 절대 잊지 말길 바란다.

엄마랑 아빠가 늘 기도로 뒤에서 응원하고 있다는것도 꼭 기억해 ^^ 사랑해 김하윤~!!



영·유아·유치부의 사순절



김은숙 전도사
(영·유아·유치부 지도)

사순절 기간 중, 올해 영·유아·유치부 아기들, 교사들 그리고 가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실천해야 할 신앙교육은 무엇일

까요?

바로 '성경 읽기'입니다.

말과 글에 서툰 발달단계에 있는 유아기 자녀들이 성경을 만나는 중요한 통로는 그림입니다. 대부분 교회들이 영·유아·유치부 주일 예배 설교 시간에 그림을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림에 담아내는 것에는 엄청난 한계가 있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 말씀을 대신 할 수 없는 것이기에, 문자로 된 성경 말씀 자체의 권위와 능력을 우리는 더욱 사모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읽어주시는 성경 말씀'을 자녀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절기입니다. 하루 중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시고 (저녁 식사 후, 잠자리에 들기 전, 매일 저녁 7시 등), 주일을 뺀 40일 동안 매일매일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의 풍성함을 귀한 자녀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영·유아·유치부 주일에

이루어지는 모든 말씀 사역의 현장에서도 인간의 그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지 않고, 오직 성경, 그 말씀 자체가 더욱 풍성히 전하여지도록, 서울교회 영·유아·유치부의 예배 현장을 위해 더욱 뜨거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올해 사순절 매일 통독 본문 말씀은 총회교육자원부(통합) 공과 자료를 기준으로 각 가정들께 지난 주일에 보내드렸습니다. 매일 통독하신 후에 사순절 묵상 달력에 표시하여 주시고, 부활절(4월 21일 주일)에 제출하여 주시면 정성껏 준비된 상품을 아기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40일 중 단 하루만 실천하셔도 좋습니다. 40일 모두 실천해 주셔도 좋습니다.

'사순절 묵상 달력 시상'은 많이 실천한 자녀들을 위한 상이 아니라, 아기들에게 성경 말씀을 듣고 읽는 시간을 가정 안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아주 작은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단 하루만 실천하셨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영·유아·유치부 아기들의 아름다운 기도임을, 우리 모두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게 됩니다.

귀한 시간을 통해 서울교회 영·유아·유치부 모든 가정들이 더욱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2019년 부활절을 기다립니다.

한가정 한선교사 후원

최근보·김은희(1)

동정



■ 연주회 : 4교구 백경화 권사(가브리엘 찬양대 지휘자, 당진시립예술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당진시립합창단 제27회 정기연주회 「파릇파릇 사월속으로 아름다운 한국의 노래를 찾아서」 4월 4일(목) 오후 7시 30분 당진시립문예의전당 대공연장 - 참석을 원하는 성도는 가브리엘 찬양대에 문의바랍니다.

■ 금주의 식사 : 이경순 집사 이진영 집사 가정 (범사에 감사하며) 함박스테이크



▲ 영·유아·유치부의 사순절 말씀 달력

- 전 성도 성경 읽기표 -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3월18일	월	수 18-19		느 8-13	
3월19일	화	수 20-21		에 1-10	
3월20일	수	수 22-24		욘 1-6	
3월21일	목	삿 1-3		욘 7-13	
3월22일	금	삿 4-6		욘 14-20	
3월23일	토	삿 7-9		욘 21-28	
3월24일	주일	삿 10-12		욘 29-34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 5:39)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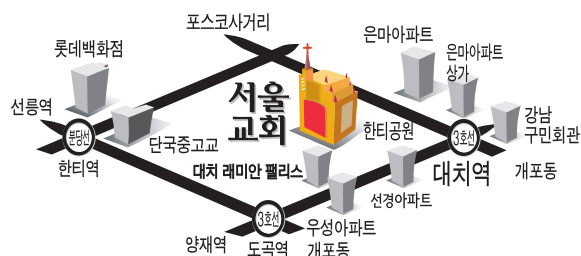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부활을 소망하는 사순절 둘째 주일이 될 수 있도록
2. 주님의 몸 되신 교회의 모든 송사를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시어 불법 세력이 속히 제거 되고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의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서울교회가 되도록
3. 3월 23일(토) 거행될 제 12사단 진중 세례식을 통하여 군선교와 민족복음화의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토)	본당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